
민중사건 속의 그리스도

1. 총 격

군사정권에 의해서 나라가 강점된 이후 이 민족의 민주화 역사는 죽임에서 죽임으로 점철되었다. 1970년 전태일의 분신자살로 시작하여 이한열군의 피살사건으로 이어지는 죽음의 역사가 마침내 자고 있던 이 국민을 깨워 일으켜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민주화의 전선에 서게 했다. 지금 여러분에게 배포된 문서에 기록된 죽음의 사건만도 50건이나 된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숫자일 수는 없다. 까닭은 광주 민주화항쟁 때의 죽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외에도 군사독재정권이 자신들에게 항거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문서화된 이 숫자에 따르면 그중 3명만 제외하고는 모두 현정권 아래서 죽어갔다. 그중 자살로 규명된 경우로는 음독, 투신, 할복, 동맥절단 등이 25건이며, 분신자살한 이가 18명이 된다. 타살이 확실해진 것은 박종철군 그리고 이번에 온 국민을 동원하게 했던 이한열군의 경우인데, 박종철군의 경우를 미루어보아 의문의 죽음으로 규명된 10명도 고문에 의한 죽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모두 12명이 타살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런 이야기는 타살, 자살의 구분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나눌 수 있을까?

2. 신학적 문제 정리

먼저 신학적으로 문제되는 몇 가지 주제를 정리하겠다.

첫째는 자살문제이다. 전태일의 분신을 놓고 그리스도교회 안에서 자살에 대한 자세가 뚜렷이 드러났다. 대부분의 보수교단에서는 자살은 교리를 위반한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그를 위한 추도예배 등을 거부했다. 이것은 자살은 죄라는 그리스도교회의 전통적인 도식을 아무 사려 없이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살과 타살이 어떻게 구별되는가? 실연을 하고, 도박을 하다 재산을 들어먹고, 또는 병고에 시달려 목숨을 끊거나 하는 것은 자살임에 틀림없다. 나도 그런 죽음에 대해서는 ‘죽을 바에야 돌 하나라도 건어차라’고 욕설을 퍼붓는다. 나 개인에 간혀서 이기심이 충족되지 않아 목숨을 끊는 것은 생명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문서에서 보듯 전태일을 위시한 분신행위나 그외의 방법으로 자해한 경우가 정말 자살인가? 전태일은 분명히 자기 손으로 기름을 붓고 성냥을 그었다. 그러나 그가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다른 강한 손이다. 저들은 거대한 불의를 고발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그 입이 너무 작았으며 그 글은 너무 약했다. 그것은 이 사회가 그들의 말이 전달될 수 없을 만큼 단절된 사회였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주권자들이 환호하는 민중들의 입을 틀어막았을 때 예수는 그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지를 것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자